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형식 유형 연구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이민형 서일중학교

- I. 서론
- II.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 III. 가치 논제 토론의 필수 쟁점
- IV. 입론 형식의 유형과 사례
- V. 결론

I. 서론

토론에서 입론(立論, constructive speech)은 토론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 전개될 토론의 토대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 입론이 풍부하고 제 역할을 다할수록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 차이가 선명해지고 쌍방이 주고받는 논쟁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나 박재현(2014 ㄱ) 등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입론을 구성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현재 부족한 상태이다.¹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교실에서 가치 논제 토론과 정책 논제 토론이 함께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의는 대체로 정책 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2009개정 중학교 1~3학년군에서는 다양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성취 기준²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14개 중 6개

-
- 1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박재현(2014 ㄱ)에서는 주로 정책 논제 토론의 입론을 중심으로 입론 구성의 교육 내용 체계와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후속연구로 박재현(2014 ㄴ)에서는 정책 논제의 필수쟁점 중의 하나인 피해와 내재성 쟁점을 중심으로 초·중·고 학습자의 입론 양상을 살펴 수준별 교육 내용을 마련코자 하였다.
 - 2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중학교 1~3학년군의 듣기·말하기 영역 중 ‘(6) 다양한 논제에 대

의 교과서³에서 주된 토론 담화 텍스트로 가치 논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수·학습의 실재를 뒷받침할 이론적 탐구는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다.⁴ 그동안 대표적인 가치 논제 토론의 분석 모형으로 가치 판단 기준-적용 모형(the criteria-application model)이 알려졌으나 이것이 실제적인 가치 논제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이는 이민형(20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 설득 화법 연구들이 정책 제안 화법에 집중하여 논의해 온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가치 논제 토론 연구의 기초 연구이자 이론적 연구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특히 본고는 찬성 측 토론자의 첫 번째 입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형식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는 가치 판단 기준-적용 모형의 구체적 활용태를 모색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입론의 거시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가치 논제 토론이 가진 필수 쟁점의 논리적 구조를 활용해 입론의 논리 구조를 마련한 다음 이에 따른 입론 형식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고안해 그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공하였다.

해 토론하고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이다.

- 3 각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치 논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김반장의 행동은 옳은 것이었나.',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이다.', '데이 문화 이대로 좋은가',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성이다.', '로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 4 비교적 가치 논제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 연구로는 이선영(2010, 2011)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가치 논제를 단독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제 유형 중의 하나로 논의한 것이다. 국어과에서 가치 논제 토론의 비중이 낮았던 것에 비해 가치 논제 토론의 핵심이 되는 가치 판단과 가치 판단 능력은 주로 사회과와 도덕과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적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 기본적 가치를 내재하기 위한 가치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고려되어 왔다. 특히 이들 교과에서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가치 정당화를 하는 가치 분석 모형과 특정한 가치를 미리 상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하는 가치명료화 모형을 중심으로 가치 판단의 과정과 정당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추정훈, 2005). 그러나 이러한 모형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에게 가치를 내재화하는 데 있으며, 가치 판단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려는 국어과의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II.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1. 가치 논제 토론의 개념

가치 논제 토론은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토론하는 것이다. 이때 어떤 대상에 대한 좋고 나쁨, 바람직함과 해로움에 대한 평가 즉 가치 판단에는 필연적으로 가치(value)가 개입되는데 이 ‘가치’는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의견이 분분한 개념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수사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로키치(Rokeach)의 정의대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로 한다.

특정 행위의 양식 혹은 존재의 최종 목표를 반대되는 행위 양식 혹은 존재의 최종 목표보다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지속적인 믿음(Rekeach, 1973: 5).

이때 가치 논제 토론의 중심이 되는 가치 논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평가 대상(object(s) of evaluation)과 평가 용어(evaluation term)이다. 그리고 이에 부속되는 하위 요소로 상황 한정자(situational qualifier)와 판단 한정자(judgemental qualifier)가 있다. 우선 상황 한정자는 평가 대상의 맥락과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에 배속된다. 또한 판단 한정자는 평가 용어의 하위 요소가 된다(Hill & Leeman, 1997). 예를 들어 ‘학교에서 모둠학습은 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가치 논제의 경우 ‘모둠학습’이 토론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대상이 되며 ‘학교에서’는 평가 대상의 맥락을 규정짓는 상황 한정자이고, ‘교육 측면에서’는 판단 한정자이다.

이러한 가치 논제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분류 방법으로 ‘보편 복지가 선별 복지보다 낫다’와 같이 특정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비교 평가형’과 앞서 예로 든 ‘학교에서 모둠학습은 바람직하다’와 같이 단일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토론하는 ‘단일

평가형'이 있을 수 있다(이선영, 2011: 91).⁵ 그러나 앞서 로키치가 “...보다 더 좋아하는...”처럼 가치를 정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는 본질적으로 위계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일 평가형 가치 문제라도 본질적으로 비교의 대상을 상정한다. 즉 반대 측의 책임은 찬성 측이 내세우는 가치를 단순히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가치의 위계를 제시하여야 한다(Scott, 1989: 152). 그러므로 비교 평가형과 단일 평가형의 차이는 오직 비교의 대상이 문제에 명시적으로 주어졌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치 문제는 그 대상에 따라 어떤 개념이나 현상(이하 개념 문제)에 대한 토론, 실용적 행위나 정책(이하 실용 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⁶ 이 중 ‘투표 인센티브제 시행은 정당하다’ 등의 실용적 행위 혹은 정책, 즉 실용 문제에 대한 가치 토론은 정책 토론과 가치 토론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흔히 ‘유사 정책 문제’라고도 부른다.⁷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가치 문제가 그 평가 용어가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바람직하다’, ‘정

5 이선영(2011)에서는 Zarefsky(1980)의 논의를 인용하여 ‘단일 평가’와 ‘합성 평가’로 나누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합성 평가’보다는 ‘비교 평가’가 더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한다고 판단하여 ‘비교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이는 Williams and Colomb(2007: 34-35)이 논증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념 문제와 실용 문제로 나눈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7 이러한 개념 문제와 실용 문제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수집한 자료 중 ‘국적 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은 정당하다’, ‘허삼관의 매혈은 정당하다’는 모두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는 실용 문제(유사 정책 문제)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개념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수사적 구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적 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이란 바로 공동체의 집합적 결정(이준웅, 2011)이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가치 토론을 한다는 것은 이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정당성을 묻는 것이며 이는 이후 이어질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의 예비 토론이 될 것이다. 그러나 ‘허삼관의 매혈’은 이러한 행위의 집합적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설 속 인물의 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기준으로 한 칭송 혹은 비판이 된다. 이는 개념 문제로 볼 수 있다.

당하다’, ‘좋다’ 등은 보편적으로 어느 평가 대상에나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 판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이다’, ‘도덕적이다’ 등은 이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판단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 가치 판단형’이라고 분류된다.

2. 찬성 측 입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

가치 논제 토론에서는 정책 논제 토론과는 달리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동등한 입증 책임을 가지며 추정은 할당되지 않는다. 이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토론에서 입론자는 ‘선결 요건을 갖춘 입론’(prima facie case)⁸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만약 이 주장이 도전받지 않는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입론을 의미한다(Ericson et al., 1987). 즉 토론 도입 시 토론 판정단이 논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논증을 입론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결 요건을 갖춘 입론 구성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필수 쟁점(stock issue)을 갖출 것을 주문한다.

이때 가치 논제를 비롯한 비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토론 분석 모형(analytical model)⁹으로 가치 판단 기준-적용 모형(the criteria-application model)을 들 수 있다. 이 가치 판단 기준-적용 모형에 따르면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은 정의적 쟁점(definitive issue)과 지시적 쟁점(designative issue)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 정의적 쟁점은 ‘핵심 용어의

8 ‘선결 요건을 갖춘 입론’ 이외에도 입론은 ‘논제 관련성(topicality)’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논제 관련성이란 찬성 측의 주장과 논제가 관련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Gill, 1989). 만약 논제 관련성을 위반하게 되면, 이는 토론을 통해 내려진 의사 결정이 정작 목표로 하는 논제와 동떨어진 것이 된다.

9 분석 모형(analytical model)이란 토론 논제를 분석하고 추론하며, 토론하는 구조적 방법 혹은 절차를 나타낸다. 특히 이 분석 모형은 논제의 필수 쟁점을 규정한다(Hill and Leeman, 1997: 169).

10 이는 본래 에나잉어와 브로크리드(Ehninger & Brockriede, 1963)가 사용한 용어로

정의는 무엇인가?’,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지시적 쟁점은 ‘평가 대상을 판단 기준에 적용해 보았을 때, 가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가?’의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치 논제는 기본적으로 비교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의 근본이 되는, 논제에 담겨 있는 판단 기준의 해석과 이의 구체적 적용이 선결 요건을 갖춘 입론에서 행해져야, 이후 원활한 상호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선결 요건으로는 (1) 핵심 용어의 정의 (2) 가치 판단 기준과 적용에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Wiese & Lewis(2000), Inch et al.(2006)¹¹ 등의 방식을 따라 가치 논제 토론의 고유한 쟁점인 (2)를 가치 전제(value premise), 가치 판단 기준(criteria), 가치 적용(value application)로 나누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Matlon(1978)이 이를 가치 논제의 대표적인 필수 쟁점으로 정착시켰다(Scott, 1989).

- 11 가치 논제 토론 연구자들은 대체로 가치 판단 기준과 그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선결 요건을 갖춘 입론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Warnick(1981)은 논증 영역의 역할을 증시하면서 (1) 평가대상(evaluatum)을 정의하기, (2) 평가대상이 속한 논증적 영역을 확실히 하기, (3) 평가를 위한 판단 기준 혹은 표준을 확립하기, (4) 평가 대상에 판단 기준 및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구체화하기, (5) 가치의 위계를 확증함의 5단계로 선결 요건을 갖춘 입론의 과제를 분류하고 있다. Willbank and Church(1991)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 1) 무엇이 핵심 평가적 용어이나? 2) 핵심 평가적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3) 과거, 현재, 미래의 조건들을 통해 평가를 옹호 혹은 부정할 수 있는가가 비정책 논제를 분석하는 세 가지 출발점이라고 하였고, Tuman(1987)도 선결 요건을 갖춘 입론으로 가치 식별(value identification), 판단 기준(criteria), 가치 위계 및 우선 순위(value hierarchy and prioritization)를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많은 논의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가치 전제, 가치 판단 기준, 가치 적용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는 실제로 가치 논제 토론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링컨-더글러스 토론에서 입론을 구축할 때의 핵심적인 구조적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3. 입론 형식에 대한 선행 연구

토론자들은 토론 분석 모형을 프레임워크로 활용하여 주장을 개발하고 조직하며, 반론을 준비한다(Hill and Leeman, 1997: 169). 이때 앞서 언급한 가치 판단 기준-적용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사실과 가치 논제에 두루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평가된다. 이 '가장 기본적인'이라는 의미는 가치 논제 토론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반면에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Hill & Leeman(1997)이 이 모형의 단점으로 이 모형 자체만으로는 토론 수행자가 사실 혹은 가치 판단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모형은 단지 판단 기준을 구성하는 것의 일반적인 중요성만을 강조할 뿐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실제 토론에 가치 판단 기준-적용 모형을 활용하려면 보다 구체화된 형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형식을 입론 부분에서 마련하기 위하여 그간 제시된 입론 형식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Richards(1992)는 대체로 정책 토론의 입론 모형을 응용하여 그것을 가치 토론에 적합하게 변형한 다양한 모형들을 소개하였다. 현 상태의 가치와 비교하여 새로운 가치의 우위를 주장하는 비교 가치 입론(the comparative values case), 현 상태가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목표-판단 기준 입론(the goals-criteria case), 그 외에 개별적 기소 입론(the piecemeal indictment case), 가치 이익 분석 입론(the value benefits analysis case), 정책 함의 입론(the policy implication case)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책 토론과 같이 현 체제(status quo)를 가정한 것으로 유사 정책 논제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다. 또 Berube(1994)는 비정책 논제의 입론 형식으로 외부의 사실들과 논제를 연결시키지 않고 논제에 의해 암시된 위계적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포괄 분석(generic analysis), 대표적 사례를 통해 논쟁을 입증하려는 사례 분석(example analysis), 정의/지시적 쟁점 분석(definitive/designative analysis), 그 외 정책 토론에 그 뿌리를 둔 판

단 기준 분석(criteria analysis), 목적 분석(goal analysis), 정책 분석(policy analysis) 등을 제시하였다. Berube의 논의는 앞서 지배적이라고 언급했던 가치 판단 기준-적용 모형에 구애받지 않고 초보적인 형태의 포괄 분석 방법부터 가능한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형식을 폭넓게 고찰했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Ziegelmuller and Kay(1997)에서는 수사 정황(stasis)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기본형인 전형적 수사 정황 입론(the stasis formula case), 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는 판단 기준 확립 입론(the criteria establishment case), 판단 기준 적용이 부각되는 판단 기준 적용 입론(the criteria application case)으로 나누었다. 이들의 논의는 입론자의 판단에 따른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입론 형식을 구안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먼저 현재 가치 논제 토론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반영된 위계적 입론 형식을 마련해야 한다. Berube가 초보적 가치 토론의 형식으로 포괄적 접근 방식을 제안한 것처럼 현재 수행되는 다양한 수준의 입론을 포함할 수 있는 입론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합할 것이다.

또한 입론 형식은 논제의 특성 그리고 입론자의 목적과 긴밀하게 연동된다. 가치 논제 토론의 논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1) 단일 평가형-비교 평가형, 2) 개념-실용 문제, 3) 보편적 가치 판단형-구체적 가치 판단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어느 특성을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 입론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Richards(1992)가 정책 논제 토론의 입론 구성을 가치 논제 토론에 맞게 조정하여 제시한 것은 앞서 언급한 실용 문제의 가치 논제 토론에 적절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입론의 거시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론 형식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선영(2011), 박재현(2014)에서 연달아 지적하였듯이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나열하는 나열형 입론이 현재 학생들이

수행하는 입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체계적인 교육 내용 없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단순하게 교육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박재현, 2014 7: 97). 물론 이러한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이유 나열형 입론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빠른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여야 하고 토론 판정단이 각각의 핵심 주장, 그리고 하위 주장과 근거들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하는 토론의 맥락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유 나열형 입론의 본질적인 문제는 박재현(2014 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입론의 거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이는 가치 논제 토론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토론의 입론은 논리적인 짜임새를 갖춘 거시 구조가 특히 중요한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문제-해결’의 전형적 구조는 정책 논제 토론에는 유용하지만, 이를 가치 논제 토론의 거시 구조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즉 현재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앎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주장에 포섭 관계나 위계 관계가 존재하거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이를 기계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들이 많아, 입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¹²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입론의 거시적 논리 구조에 대한 이해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설정한다. 이를 위하여 필수 쟁점의 논리적 구조를 활용해 입론의 논리 구조를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입론 형식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12 특히 미국의 경우 본격적인 주장(contention)이 들어가기 전 observation(관점) 등의 설정으로 가치 전제나 가치 판단 기준을 미리 설정하여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성질의 주장과 근거들을 함께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III. 가치 논제 토론의 필수 쟁점

1. 핵심 용어의 정의

논제에 사용된 단어를 해석하여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핵심 용어의 정의는 논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토론의 영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가치 논제 토론의 경우 용어 정의 자체가 토론의 승패를 결정하는 투표 쟁점(voting issue)이 될 수도 있다.

핵심 용어 정의의 대상은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 모두이다. 대체로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는 도입부에서 평가 대상, 예를 들어 ‘협동학습은 바람직하다.’에서의 ‘협동학습’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평가 용어의 정의는 가치 전제, 판단 기준과 연동하여 본문에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Hill and Leeman, 1997: 246).

2. 가치 전제(value premise)

핵심 용어를 정의한 후에는 각 입론이 입증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되는 가치 전제를 생성하여야 한다. 이 가치 전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을 통해 확증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다. 예를 들어 ‘협동학습은 바람직하다’는 논제에서 찬성 측은 협동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협동이라는 가치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가치 전제를 입론을 통해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때 가치 전제는 가치 대상(value object)과 가치 위계(value hierarchy)로 이루어져야 한다.¹³ 가치 대상은 가장 핵심 가치이거나 토론되어야

13 이들은 Inch et al.(2006)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단 Inch et al.(2006)은 가치 전제라

하는 논제의 핵심 개념이다. 위의 사례에서 ‘협동’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가치 위계는 토론에서의 각 토론자가 옹호하는 가치의 중요한 순서이다(Inch et al., 2006: 234). 위의 사례에서는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협동을 통한 학습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함축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¹⁴ 후술하겠지만 가치 전제는 핵심 용어를 정의하여 논제의 요소를 구체화하고, 논제를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이 속해 있는 논증 영역(argument field)을 구성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Hill and Leeman, 1997: 252). 이른바 ‘협동학습은 바람직하다.’는 논제의 경우 협동학습 등의 핵심 용어를 구체화해 보면 이것이 교육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영역과 관련된 가치 전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전제는 뒤이어 언급할 가치 판단 기준(criteria)와 가치 적용(value application)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3. 가치 판단 기준(criteria)

가치 판단 기준(criteria)은 의문시되는 쟁점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들이다. 예를 들어 A 선생님이 B 선생님보다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며 그 이유로 A 선생님이 B 선생님보다 더 웃기기 때문이라 한다면, ‘좋은 선생님’이라는 가치 전제의 판단 기준으로 ‘유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Bartanen and Frank, 1994). 즉 토론자들은 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치 전제를 발언하고, 이 가치 전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가치 판단 기준을 내세운다(Baldwin, 2006). 가치 판단 기준은 가치 논제 토론에서 세 가지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뒤따를 의사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둘째 토론

는 용어 대신 ‘가치’(valu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쟁점이 명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가치 전제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

14 만약 논제가 단일 평가형이라면 이런 가치 위계는 함축적으로, 비교 평가형이라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에서의 핵심 쟁점을 구체화하며, 마지막으로 입론에서의 주장 전개 구성을 돕는다(Hill and Leeman, 1997)

또 이 판단 기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부합 정도를 잴 수 있는 잣대(measuring stick), 또는 가치 전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길(road) 혹은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판단 기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전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렌즈(lens)로서의 역할을 판단 기준이 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판단 기준을 설정할 때는 먼저 공정해야 하며 치우치거나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토론의 우선되는 잣대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건 적용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논증의 영역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평가를 충족하는 조건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치를 보여 주어야 한다(Richards, 1992).

4. 가치 적용(value application)

마지막으로 가치 적용(value application)은 평가 대상이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증거이며, 논증, 사례, 사실적 정보들이 이에 활용된다(Inch et al., 2006). 예를 들어 협동학습의 협동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가치 전제를 세우고, 판단 기준으로 학생들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내세우며 협동 학습을 통해 실제 학생들의 인성이 개선된 통계 혹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가치 적용이 되는 것이다.

15 이러한 판단 기준의 비유는 Pitchford, M. (2008)에서 한 것이다. 그는 판단 기준을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measuring stick), 가치를 쟁취할 수 있는 길(road), 가치를 구체화하고,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렌즈 클리너(lens cleaner)로 비유하였다. 본고에서는 세 번째 비유가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약간 불명확하다고 판단, 렌즈(lens)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5.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에서 드러나야 하는 필수 쟁점은 앞서 언급한 핵심 용어의 정의, 가치 전제, 가치 판단 기준, 그리고 가치 적용이다. 이 중 가치 논제 특유의 쟁점은 가치 전제, 판단 기준, 그리고 가치 적용이다. 이 세 가지 쟁점의 논리 구조가 어떻게 입론의 논리 구조로 연결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앞서 밝힌 대로 입론자의 최종 목적은 가치 전제를 확증하는 데 있으며, 판단 기준과 가치 적용은 가치 전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핵심 하위 쟁점들이다. 구체적 논제를 통해 이들 쟁점의 관계를 보이면 <표 1>¹⁶과 같다.

표 1. 논제와 세 가지 쟁점(가치 전제·기준·적용)의 관계 예시

논제	가치전제	판단기준	가치 적용
협동학습은바람직하다.	협동학습에서의 협동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	해당 조치는 학생들의 인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학생들의 인성이 협동학습의 협동을 통해 개선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표 1>에 의하면 ‘협동학습은 바람직하다’라는 논제에서 ‘협동학습에서의 협동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가치 전제를 도출한 다음, 이를 확증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구성하였다. 만약 어떤 조치가 학생들의 인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 조치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일 것이다. 이 판단 기준에 따라 협동학습의 협동이 학생들의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면, 협동이 교육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후 통계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이 협동학습의 협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협동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함을 주장할 수 있다.

16 <표 1>은 Pork et al.(2000: 17)의 제시 방식을 응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가치 논제 토론의 근본적인 판단 형식인 가치 판단(평가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와 일치한다. 가치 판단 혹은 평가적 추론은 <표 2>와 같이 대전제(가치 준거), 소전제(사실), 결론(평가)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연역 논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김재식, 2007).

표 2. 논리적 추론과 평가적 추론의 비교(김재식, 2007: 87)

논리적 추론(사실적 명제)		평가적 추론(규범적 명제)
대전제	→	가치 준거(원리)
소전제	→	사실(기술)
결론	→	가치 판단(평가)

평가적 추론은 가치 준거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 사실이 부합하면 결론적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적 추론의 구조에 앞에서 논의한 가치 토론의 필수 쟁점을 적용해 보면 판단 기준과 가치 전제의 술부가 대전제인 가치 준거를 이루고, 가치 적용을 통해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가치 준거와 부합하는지 판단을 하여 결론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대전제인 가치 준거를 이루는, 판단 기준과 가치 전제의 술부의 관계를 일종의 조건문 관계로 파악한다. 즉 판단 기준이 전건이 되고, 가치 전제의 술부가 후건이 된다. 따라서 가치 토론의 필수 쟁점의 구조는 대전제가 가언명제인 혼합가언삼단논법(混合假言三段論法)으로 변환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혼합가언삼단논법의 형태로 이 필수 쟁점을 변환한 것을 입론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로 설정하려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Baldwin(2004)이 제안한 것이다.¹⁷ 그는 링컨-더글러스 토론에서 참여자들이 가치 전제와 논제의 관련성, 또 가치 전제와 판단 기준의 관련성을 명

17 본고는 Baldwin의 제안을 수용하였으나, 세부 사항은 다르다. 그 차이점을 4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확히 하지 못하고, 가치를 충족시키는 필요와 충분 조건을 구별하지 못하며, 가치 전제와 판단 기준을 혼동하는 등의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논리 구조를 제안했다. 앞서 든 예인 ‘협동학습은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입론을 구성한다면 그 논리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대전제] 만약 어떤 조치가 학생들의 인성을 개선한다면(판단 기준),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가치 전제의 술부).

[소전제]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인성을 개선한다(가치 적용).

[결론] 협동학습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따라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 기준과 가치 전제의 술부가 대전제를 형성하고, 가치 적용에서 투입되는 정보, 사례들이 소전제가 되며, 이후 결론을 확증하게 되는 형태는 가치 논제 토론에서 보편적이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는 가치 논제가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가치 판단의 논리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론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논제 토론의 논리적 흐름을 단순화하면 <표 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3. 가치 논제 입론의 논리적 구조

(대전제) if 판단 기준, 가치 전제의 술부(가치 준거)
(소전제) 가치 적용(사실)
(결론) 가치 전제의 확증 → 논제의 찬성/반대(가치 판단)

물론 Baldwin(2004)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을 구성하는 과정은 <표 1>에서 제시된 논리 구조의 반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즉 논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가치 전제를 추출하고, 이 가치 전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치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 대상이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가치 적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입론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상황에 따라 어느 한 부분이 부각될 수도 혹은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입론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의 활용에 따라 입론 형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논리 구조가 부각되는 양상에 따라 약 4가지의 유형이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데, 1) 판단 기준이 부각, 2) 가치 적용이 부각, 3) 가치 전제, 판단 기준, 가치 적용 모두가 균등하게 부각, 4) 이유를 산발적으로 제시해 전체적 논리 구조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¹⁸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에 의한 입론 형식의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논의한다.

IV. 입론 형식의 유형과 사례

1. 입론 형식 적용의 기준: 평가 용어의 구체성

앞서 입론 구성은 논제의 특성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가치 논제는 앞서 논의한 대로 1) 비교 대상이 논제에 명시적으로 주어졌는가(단일 평가형-비교 평가형), 2) 평가 대상의 성격이 개념인가, 실용적 정책 혹은 행위인가(개념 문제-실용 문제), 3) 평가 용어가 얼마나 구체적인가(보편적 가치 판단형-구체적 가치 판단형)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기준이 가장 중점으로 삼고 있는 가치 논제의 형식적 요소는 <표 4>와 같다.

이때 본고에서 제안하는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에 의한 입론 형식을 적용할 때 가장 긴요하게 관련되는 논제의 특성은 3)인 평가 용어의 구체화 정도이다. 물론 다른 특성이 본고에서 제안하는 입론 형식과 아주 연관이 없다

18 앞서 논의한 것처럼 가치 전제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종 목표가 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하위 쟁점들이 판단 기준, 가치 적용이다. 따라서 이들의 작용 없이 가치 전제만 따로 부각되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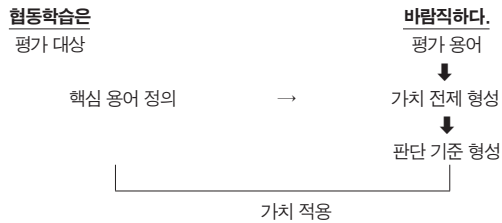
표 4. 가치 논제의 분류 기준과 형식적 요소

분류 기준	형식적 요소
비교 대상이 논제에 명시적으로 주어졌는가	비교형 술부
평가 대상의 성격이 개념인가 실용적 정책 혹은 행위인가	평가 대상
평가 용어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평가 용어

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후에 사례를 통해 제시하겠지만 필수 쟁점 논리 구조의 서술 형식(단일 평가-비교 평가형)에, 그리고 판단 기준의 특성(개념-실용 문제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본고에서 고안한 필수 쟁점의 논리적 구조에 의한 입론 형식의 가장 중요한 적용 기준은 평가 용어의 구체성이며, 다른 것들은 하위 적용 기준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평가 용어의 구체화 정도는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에 의한 입론 형식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평가 용어와 필수 쟁점의 연계 양상을 <표 5>로 제시한다.

표 5. 평가 용어와 필수 쟁점의 연결 관계



<표 5>에서는 핵심 용어 정의를 통해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가 1차적으로 규정되고 난 후 가치 전제와 판단 기준을 통해 평가 용어가 구체화되고, 판단 기준의 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 대상과 평가 용어가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평가 용어의 구체화 절차가 바로 가치 전제와 판단 기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좋다’, ‘도덕적이다’ 등의 평가 용어는 툴민(Toulmin)에 의하면

두 가지 측면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용어의 힘’과 ‘용어의 판단 기준’이다. 우리는 이 용어의 힘과 용어의 판단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해당 평가 용어를 판단할 수 있다. 톨민은 ‘좋다(good)’라는 평가 용어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좋다’는 용어는 테니스의 발리, 진공청소기, 반 고흐 등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똑같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측면에서 칭찬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영역에 따라 보편적인 ‘힘’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진공청소기가 좋다고 하는 기준과 반 고흐가 좋다고 하는 기준은 다르다. 즉 판단 기준은 영역마다 다른 특수한 것으로, 이 ‘좋다’는 평가 용어도 용어의 힘에 구체적인 영역의 판단 기준이 결합되어야 그 진면모를 알 수 있다(Toulmin, 2003: 60-72).

이러한 톨민의 논의를 가치 논제에 적용하면, 가치 논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람직하다’, ‘유익하다’, ‘정당하다’ 등 보편적 가치 판단형 평가 용어들은 위에 예로 든 ‘좋다’와 같이 어느 영역이나 두루 사용되며 ‘용어의 힘’만을 명시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 가치 판단형 평가 용어로 논쟁할 때는 판단 기준을 도출함에 앞서 구체적 논증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된다. 반면 ‘교육적이다’, ‘도덕적이다’ 등 구체적 가치 판단형 평가 용어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영역을 이미 지시하고 있으므로, 바로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판단 기준을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판단 기준마저 청중에게 익숙하여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이러한 판단 기준이 어떻게 평가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지 논증할 수도 있다. 즉 평가 용어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해야 할 기본적인 입론자의 과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론 형식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논증의 힘만 있고 구체적인 논증의 영역을 지시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 판단형에 사용될 수 있는 입론 형식에 대해 논의해 보자. 이때는 핵심 가치를 추출해 구체적인 논증 영역을 구성하는 작업인 가치 전제를 마련하고 이후에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과제가 된다. 즉 세 가지의 가치 쟁점의 논리적인 순서대로 기본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표 6.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에 따른 입론 형식의 유형

적용 상황	명칭	가치 전제	판단 기준	가치 적용
보편적 가치 판단형	필수 쟁점 반영형	입론자가 새로 생성	○	○
		특징: 가치 전제 마련 - 판단 기준 수립 - 가치 적용의 기본적인 절차를 밟음		
구체적 가치 판단형	판단 기준 정당화형	토론 논제 평가 용어 그대로 사용	○	○
		특징: 토론 논제의 평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가치 전제를 형성하고 판단 기준 정당화에 비중을 둠		
	가치 적용 부각형	토론 논제 평가 용어 그대로 사용	함축 귀납	○
		특징: 토론 논제의 평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가치 전제를 형성하고 함축적·귀납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가치 적용되는 양상 부각		
초보적 사용	이유의 산발적 제시형	×	×	×
		특징: 전체적인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가 드러나지 않음		

따라서 앞서 설계한 필수 쟁점의 논리적 구조를 입론에 균등하게 반영해야 설득력 있는 입론이 나온다. 이를 ‘필수 쟁점 반영형’이라 명명한다.

한편 ‘교육적이다’, ‘도덕적이다’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논증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평가 용어인 ‘구체적 가치 판단형’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이때는 이미 평가 용어가 구체적 논증 영역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치 전제를 진술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가치 전제를 생성하기보다는 토론 논제의 평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바로 자신의 주장이 차별화되는 지점인 판단 기준을 정당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 기준 정당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Zieglmuller and Kay(1997)의 판단 기준 확립 입론(the criteria establishment case)과 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구체적 가치 판단형의 경우 가치가 적용되는 사례, 정보 등을 강조함으로써 소전제 역할을 하는 ‘가치 적용’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이를 ‘가치 적용 부각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Zieglmuller and Kay(1997)의 판단 기준

적용 입론(the criteria application case)과 상통하는 것으로 가치 적용의 구체적 정보, 사례들을 부각시키는 입론이다. 이는 판단 기준을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되거나,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내세우는 데 비중을 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보적인 토론자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양상으로 평가 용어에서 가치 전제와 판단 기준을 추출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아, 입론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보이지 않고 논제에 부합하는 이유와 근거들을 아무런 위계 없이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의 입론이 있다. 이를 ‘이유 의 산발적 제시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치 논제 토론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가 생성할 수 있는 출발점 형태의 입론 유형이며, 학습자는 이러한 형태의 입론으로부터 점차 자신의 입론의 논리적 구조를 익혀 다른 입론의 형태로 발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부터는 실제 고등학생 대상 토론 대회에서 수행된 가치 논제 토론에서의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을 각각의 입론 형식의 유형에 적용하여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이 토론 표본들은 모두 인터넷의 오픈 소스로서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자료이며, 토론 방송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송 토론 형식, CEDA, 퍼블릭 포럼 등 일정 형식을 갖춘 토론 대회¹⁹에서 수행된 것이다. 특히 독서 토론 대회의 사례 2건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소셜 속의 인물 행동의 정당성 혹은 합의를 묻는 독서 토론 대회의 특성상 가치 논제가 많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19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은 대부분의 토론 형식에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토론의 형식을 따로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표 7. 대상 사례

기호	논제	형식	일시
A	가난은 개인의 탓이 사회구조의 문제보다 더 크다. ²⁰	자체 형식	12.10.6 ²¹
B	한국은 남녀평등지수가 높은 나라이다.		12.11.10
C	문지 마 범죄는 범죄자 개인의 책임이다.		12.10.13
D	SNS를 통한 소통은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		12.02.04
E	연예인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하다.		12.10.20
F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은 대중문화 성장에 도움이 된다.		12.02.11
G	영유아 조기 영어 교육은 필요하다.		12.04.21
H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우선된다.		12.03.10
I	심미를 위한 성형수술은 보편적 삶에 유익하다.		12.01.21
J	성형 열풍, 열광·몸장 문화는 바람직하다.	CEDA	09.11.28
K	유전자 특허 부여는 정당하다.	CEDA	11.08.27
L	SNS는 인간 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CEDA	14.10.25
M	남북 경제 협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퍼블릭 포럼	14.06.15
N	국적 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은 정당하다.	CEDA	06.10.26
O	그레고르를 버린 가족들의 행위는 정당했다.	CEDA	13.06.07
P	허삼관의 매혈은 정당했다.	CEDA	13.05.23
Q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자체 형식	12.10.29

20 토론의 논제를 진술할 때는 ‘단 하나의 논쟁점만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논제는 단문의 서술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긍정형의 형태로 기술되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한상철, 2006). 그러나 아직 한국은 토론대회마다, 방송마다 이러한 토론의 논제 특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러한 논제의 조건이 엄밀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논제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논제의 경우, 올바른 형식의 논제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21 각각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A~I: ‘국회방송 고교토론왕 서바이벌’ / J: 제9회 직지배 토론대회 고등부 결승전 / K: 제2회 전국 고등학생 바이오안전성-바이오산업 토론대회 결승 / L: 제10회 직지배 토론대회 고등부 결승전 / M: 제1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 고등부 결승 / N: 제4회 자유총연맹 토론대회 결승 / O: 2013 낙동고 교내 토론대회 결승 / P: 2012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최 고교독서토론대회 결승 / Q: 2012 시흥사랑청소년 토론대회.

2. 필수 쟁점 반영형

가치 논제 토론의 필수 쟁점인 ‘가치 전제’, ‘가치 판단 기준’ 그리고 ‘가치 적용’을 입론에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반영한 입론 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필수 쟁점 반영형의 입론 형식은 주로 ‘보편적 가치 판단형’의 평가 용어를 채택한 가치 논제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허삼관의 매혈은 정당했다’는 논제를 가지고 입론을 펼친 자료이다. ‘정당하다’는 어느 영역에나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성이 낮은 ‘보편적 가치 판단형’의 평가 용어이다. 사례 입론을 ‘가치 전제’, ‘가치 판단 기준’ 그리고 ‘가치 적용’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P] 허삼관은 이 당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매혈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서 허삼관이 자신의 희생하면서까지 매혈을 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것들은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 즉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성애는 오늘날까지도(...)[가치 전제]

가치를 다시 묻다에 따르면 사랑이란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가치 판단 기준] 허삼관의 말 중에는 자신은 인생을 즐길 만큼 즐겼고 자신의 아들인 일락 이락 삼락은 아직까지 즐길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들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판다라는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허삼관이 사랑을 실천했다고 봅니다[가치 적용]

[P]에서 입론자는 허삼관의 매혈이 정당했다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가치를 도입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많은 가치는 변하지만 사랑, 부성애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한다.²² 이어 입론자는 독서 토론인 특성을 살려, 자료가 되는 책을 인용

22 Wiese & Lewis(2000)에 의하면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은 해당 가치가 보편

하여 가치 판단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가치 전제의 가치 대상인 사랑이란 한없이 베푸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잣대, 길 혹은 수단, 렌즈로서의 판단 기준 중 세 번째 렌즈로서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사랑이 나타날 때의 전형적 특징을 제시하여 과연 허삼관의 행위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삼관의 말을 인용하여 허삼관의 행위가 베푸는 행위임을 보여 이는 사랑이므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위의 사례를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대전제] 어떤 행위가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특성을 가진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소전제] 허삼관은 아들들을 위하여 베푸는 행위를 하였다.

[결론] 허삼관의 행위는 아들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정당화된).

이때 가치 판단 기준과 가치 전제의 술부는 앞서 살핀 대로 [대전제]에서의 조건문과 그에 따른 서술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준거에 따라 소전제에서 나오는 사실적 정보를 검증하며, 결론인 허삼관의 행위는 사랑이므로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필수 쟁점 반영형의 입론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 쟁점 반영형의 논리 구조에서는 두 차례의 논리적 관련짓기 절차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대전제에서의 가치 전제와 가치 판단 기준의 관련짓기, 그리고 결론에서의 논제와 가치 전제의 관련짓기가 바로 그것인데, 필수 쟁점 반영형에서 입론자는 이러한 두 절차가 청중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 유의하며 입론을 구성하여야 한다.

적이고 널리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나타내든지(value inclusion), 해당 가치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든지(value realization), 핵심적인 가치(core value)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가치 논제를 적용할 때의 기준에는 평가 용어의 구체화 정도 외에 비교 대상의 명시성, 그리고 평가 대상이 개념 혹은 실용 문제인지의 기준도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에 의한 입론 형식에서는 ‘평가 용어의 구체화 정도’의 하위 기준으로써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보편적 가치 판단형’의 평가 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비교 대상이 명시적으로 주어진 비교 평가형인 경우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에 따른 입론 형식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보자.

[Q] (···)오늘날 성적과 입시라는 결과에만 집착하여 부담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학생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과 중심 풍조의 부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가치 전제] 이에 긍정측은 첫째 올바른 과정이 삶을 행복하게 해 주며 (···) 둘째, 결과만이 중시된다면 공동선이 저해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과정은 그 자체로도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근거로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바입니다[판단 기준] 첫째로 올바른 과정은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나 취미 생활 타인에 대한 봉사를 모두 포기하고 공부에만 집착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잠시 기쁨을 누릴지는 몰라도 또 취업이라는 목표 하에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가치 적용]

[Q]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비교형의 논제이다. 이 ‘중요하다’는 ‘보편적 가치 판단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필수 쟁점 반영형의 입론 형식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Q]에서는 도입부에서 논제의 수사적 맥락을 밝히며, 현재 우리 사회가 ‘결과 중심의 가치관’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과정 중심의 가치관’을 들고 있는데 이는

논제에서의 ‘과정’과 ‘결과’를 ‘결과 중심의 가치관’, ‘과정 중심의 가치관’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어 입론자는 청소년에게는 ‘과정 중심의 가치관’이 ‘결과 중심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치 위계를 강조하는 가치 전제를 구성한다.²³ 이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단적 가치가 있는가’, ‘그 자체로도 근원적 가치가 있는가’의 판단 기준을 생성하고 있다.²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치 논제는 본래 비교 활동이다.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자신의 가치 위계를 가지고 그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찬반의 가치 위계가 명시적인 비교 평가형에서는 찬성 측은 자신의 가치 위계를 주장하기 전 반대 측의 가치 위계를 예측하고 이를 적극 반영한 가치 전제와 판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논리 구조의 서술 방식에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띌 수 있다.

[대전제] 두 가치관 중 삶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판단 기준)이 청소년에게 더 중요하다.

[소전제] 과정은 결과보다 삶을 행복하게 해 준다.

[결론] 과정이 결과보다 청소년에게 더 중요하다(따라서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

즉 이러한 비교 평가형의 논제로 입론을 구성할 때는 명시적인 가치 위계가 전면적으로 서술 방식에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즉 각 전제와 결론이 비교형으로 서술되게 된다. 다음으로는 실용 문제로 가치 토론을 할 경우를 살펴보자.

[M] 여기서 남북 경험이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성을 띤 경제협력이며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를 가장 앞세워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을 말함

23 앞서 가치 전제의 구성 요소로 가치 대상과 가치 위계를 든 바 있다. 비교 평가형의 논제일 경우 이러한 가치 위계가 강조되어 가치 전제가 구성된다.

24 그러나 이러한 2개의 판단 기준이 서로 정합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니다 통일을 위해 남북간 경제협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가치 전제] 둘째로 경제 협력은 남북한에게 모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치 판단 기준] 북한은 에너지 생산 감소로 인하여 경공업 생산 감소 및 생활 수준 저하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고(…) [가치 적용]

[M]은 남북 경협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론이다. 즉 보편적 가치 판단형이며, 실용 문제에 대한 가치 논제이다. [M]에서는 남북 경협이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가치 전제를 생성하며,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가’라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M]의 논리 구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은 통일의 기반이 된다.

[소전제] 남북 경협은 남북한에게 모두 이득이 되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결론] 남북 경협은 통일의 기반이 된다(따라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실용 문제에 대한 가치 논제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는 그것이 실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측면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두드러진다. 이는 일찍이 Zeushner, R. (1982)이 제안한 가치 이익 분석(value benefit analysis)와 상통한다. 이것은 이러한 실용 문제에 대한 가치 논제 토론이 유사 정책 토론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이 도입되기 위한 예비 토론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실용 토론에서는 특정 실용적인 행위는 가치 전제에서 드러난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이것이 수단으로써 갖는 실질적 이익을 다각도로 검증하게 된다.

앞서 사례를 통해 고찰한 바와 같이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한 입론 유형에서는 ‘평가 용어의 구체성 정도’가 입론 형식을 분류하는 일

차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 외의 기준인 ‘가치 위계의 명시화 정도’는 논리 구조의 서술형식에, 그리고 ‘개념-실용 문제’의 기준은 판단 기준의 특성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3. 판단 기준 정당화형

이는 입론에서 가치 판단 기준의 정당화에 특히 주안점을 둔 유형이다. Richards(1992)는 가치 판단 기준은 권위자의 의견을 증거로 대거나, 보편적인 대중의 생각임을 표현하거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입론에서 가치 판단 기준의 상대적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체로 토론 논제의 평가 용어가 이미 구체적이어서 논제에 드러난 평가 용어를 가치 전제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이다. 즉 ‘개인의 책임이다’,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 ‘인간 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등 구체적 가치 판단형의 평가 용어들이 사용되었을 때 입론자들은 굳이 가치 전제를 새롭게 생성하기보다는 이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인 가치 판단 기준의 정당화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I] 저희 JDAM 팀에서는 심미적 목적을 위한 성형수술은 보편적 삶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가치 전제] 우선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본능입니다 그것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는 화장이나 옷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가치 판단 기준 1] 하지만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확실하게 욕구를 좀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가 성형을 통해 해소된 것입니다.[가치 적용 1] (...) 2010년 성형외과와 인터넷 리크루트 회사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차원으로 외모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외모가 사람들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가치 판단 기준 2]

[1]의 논제는 ‘심미를 위한 성형수술은 보편적 삶에 유익하다’이다. 이때 찬성 측은 이 ‘보편적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가치 전제로 진술하면서 2개의 가치 판단 기준을 진술하고 있다. 이때 [1]에서는 ‘인간에 게는 원래 보편적인 미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논리적 추론으로 뒷받침하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미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여론조사로 뒷받침하여 ‘보편적 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 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가’의 가치 판단 기준을 정당화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그 이후 성형 수술이 본래적·사회적 욕구 충족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편적 삶에 유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중 첫 번째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을 가치 판단의 삼단 논법 형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제]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보편적 삶에 유익하다.

[소전제] 성형수술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결론] 성형수술은 보편적 삶에 유익하다.

이를 앞서 언급한 ‘허삼관의 매혈은 정당하다’ 논제의 필수 쟁점 반영형 입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필수 쟁점 반영형과 가치 기준 정당화형의 비교

<p>(대전제)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풀다면, 사랑이다.</p> <p>(소전제) 허삼관은 아들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파는 등 베푸는 행위를 하였다.</p> <p>(결론) 허삼관의 행위는 사랑이다(따라서 정당화된).</p> <p>필수 쟁점 반영형</p> <p>‘허삼관의 매혈은 정당하다’</p>	<p>(대전제)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보편적 삶에 유익하다.</p> <p>(소전제) 성형수술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p> <p>(결론) 성형수술은 보편적 삶에 유익하다.</p> <p>가치 판단 기준 정당화형</p> <p>‘성형 수술은 보편적 삶에 유익하다’</p>
---	---

〈표 8〉에서 두 유형을 비교해 보면 필수 쟁점 반영형의 [결론] 부분에서는 괄호 안의 진술 ‘따라서 정당화된다’와 같이 토론자가 입론 과정에서 자신이 구체화한 가치 전제가 논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데 직결되는 것임을 관련시키는 과정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가치 판단형인 성형 수술 논제에서 입론자는 ‘보편적 삶에 이익이다’라는 평가 용어는 이미 구체화된 것으로 더 이상 구체화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단순히 이를 반복하여 가치 전제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판단 기준을 생성하고 있다.²⁵ 따라서 필수 쟁점 반영형과 같이 굳이 가치 전제와 논제의 관련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4. 가치 적용 부각형

가치 적용 부각형은 가치 판단 기준 정당화형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가치 판단형의 평가 용어가 논제에 사용되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입론 형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치 전제나 가치 판단 기준보다 평가 대상이 이에 부합함을 드러내는 사실적인 경험, 근거, 사례들을 부각시키는 입론을 말한다. 즉 이 가치 적용 부각형은 앞선 3단 논법에서의 [소전제]가 되는 것들을 부각시킨다. 이 가치 적용 부각형 입론은 청중이 쉽게 받아들일 가치 판단

25 Baldwin(2004)은 논제의 가치 용어 포함 여부에 따라 가치 전제와 가치 판단 기준의 유형, 그리고 논리 구조를 달리 설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논제가 가치 용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두 개의 규범적 전제가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가치 판단 기준과 가치 전제를 연결짓는 전제이며, 또 하나는 가치 전제와 논제를 연결짓는 전제이다. 한편 가치 용어가 포함된 논제의 경우, 기존의 가치 전제와 가치 판단 기준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가치 전제(본고의 대전제에 해당)를 설정하였다. 이는 대체로 본고의 필수 쟁점 반영형과 가치 판단 기준 정당화형의 논리 구조를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렇게 논제의 유형마다 가치 전제, 판단 기준의 성격과 논리 구조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가치 논제 토론의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범용적인 필수 쟁점과 그 논리 구조를 먼저 마련하고 이를 각 입론 형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준 혹은 가치 전제일 때, 혹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가치 적용 사실로부터 충분히 도출 가능한 가치 판단 기준이나 전제라고 생각했을 때, 가치 판단 기준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거나 축소시켜 드러내고, 가치 적용 사례들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

[F]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현재 아이돌 위주의 문화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의 선풍적인 인기로 아이돌 중심의 대중문화가 그 아이돌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가치 판단 기준]

첫 번째로 대중들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문화 프로그램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 소논거로 첫째 슈퍼스타케이에서 우승한 율랄라세션 버스커버스키와 같은 인디 가수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가치 적용 1]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중문화를 융합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생산합니다. 이에 대한 소논거로 슈퍼스타 케이 위대한 탄생 같은 (...) [가치 적용 2] 오디션 프로그램은 수많은 경쟁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력있는 재원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가치 적용 3]

[F]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은 대중문화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논제이다. 이때 [F]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아이돌 위주의 문화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아이돌 중심의 대중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판단 기준을 상당히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 개의 대주장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중문화를 아이돌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어, ‘가치 적용’이 부각되는 형태의 입론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제] 아이돌 중심의 대중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중문화의 성장에 도움

이 된다.

[소전제 1]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중 문화의 저변을 확장시켜 아이돌 중심의 대중문화에서 벗어나게 한다.

[소전제 2]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중문화를 융합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아이돌 중심의 대중문화에서 벗어나게 한다.

[소전제 3] 오디션 프로그램은 실력있는 재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아이돌 중심의 대중문화에서 벗어나게 한다.

[결론] 오디션 프로그램은 대중문화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또한 아예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가치 적용 부각형 입론도 있다. 예를 들어 [B]는 한국은 남녀평등지수가 높은 높은 나라라는 논제에서²⁶ ‘높다’는 것에 특별한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법률과 제도 측면’, ‘국내적, 국제적 측면’, ‘일상적 생활 측면’에서 양성평등이 높은 수준에 있음을 제시하고 ‘높다’라는 판단이 적절함을 증명하고 있다.

[B] 그 이유로는 첫째 법률과 제도적으로 양성평등한 나라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적으로도 양성평등한 나라라는 것을 입증합니다[가치 적용 1] 둘째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양성평등한 나라라는 것을 인식되고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도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한 성불평등 지수가[가치 적용2] 셋째 일상생활의 모습에서도 양성평등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 [가치 적용 3]

이러한 접근은 다분히 귀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입론자는 ‘양성 평

26 ‘한국은 남녀평등지수가 높은 나라이다.’는 언뜻 보면 사실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남녀평등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문제가 토론되게 되므로 실상은 가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제를 ‘유사 사실 문제’라고도 한다.

등의 수준이 높다’는 가치 전제의 경우 일부러 임의의 가치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다방면의 사실들을 보이고 이 사실들을 통해 높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치 적용 부각형에서는 경우에 따라 연역적 방식보다는 귀납적 접근도 가능하다.

[가치 적용 1] 법률과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다.

[가치 적용 2] 국내적,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다.

[가치 적용 3] 일상 생활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다.

[결론]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다.

이러한 귀납적 구성일 경우 이를 들은 상대방은 이러한 논리가 성급한 일반화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귀납적 방식을 취할 경우 다방면의 ‘전형적 사례’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위의 입론은 그런 의미에서 다방면의 사례를 동원하였으며, 또 성불평등지수 등의 각각의 사례들이 가치 전제인 ‘우리나라의 양성 평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5. 이유의 산발적 제시형

이는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형식을 위계화한다고 하였을 때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입론이다. 입론자가 가치 전제와 가치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도 함축적으로도 생성하지 않아 입론 전체를 포괄하는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입론에서는 가치 논제에서 자신의 입장이 옹호되어야 하는 이유를 산발적으로 첫째, 둘째 등으로 열거한다.

[E] 첫 번째 소셜테이너도 한 사람의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잊혀져 가는 하지만 잊혀져서는 안 되

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는 기존 연예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나라 정치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는 연예인의 정치 참여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묻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입론이다. 이러한 논제는 보편적 가치 판단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때 찬성 측은 연예인, 정치 참여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가치 전제와 판단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시행되지 않고 바람직한 이유를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형태의 입론이 되었다. 첫 번째 이유인 ‘소셜테이너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중요한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등에서는 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위계와 질서가 보이지 않으며, 찬성 측이 어느 이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입론에서는 이른바 명확한 가치 전제와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와 근거들이 어떤 위계와 질서를 갖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론에 반박하게 되는 상대방도 분산되어 있는 국지적 이유와 근거 중의 하나에 대해 반응하며 반박할 수밖에 없어, 중요한 쟁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V. 결론

본고에서는 가치 논제 토론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한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형식을 이론적으로 구안하였다. 본고는 학생들이 입론의 거시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가치 논제 토론이 가진 필수 쟁점의 구조를 활용해 입론의 논리

구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입론 형식을 이유의 산발적 제시형, 필수 쟁점 반영형, 판단 기준 정당화형, 가치 적용 부각형 등으로 고안하고 각각의 구체적 실제 사례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들은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한 입론 형식의 유형이기 때문에 가치 논제의 특성 중 ‘평가 용어의 구체도’를 가장 중요한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만약 다른 가치 논제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 다른 다양한 입론 형식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론적 연구인 본 연구 특성상,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학생들의 가치 토론 입론 양상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론적 모형을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5. 7. 31. 투고되었으며, 2015. 8. 4. 심사가 시작되어 2015. 8. 2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박재현(2013),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사회평론 아카데미.
- _____(2014 ㄱ), 「정책 토론의 입론 구성 교육 연구」, 『우리말글』 제60권, 우리말글학회, pp. 93-121.
- _____(2014 ㄴ), 「초·중·고 학생의 정책 토론 입론 양상 분석: 피해와 내재성 쟁점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25권, 한국화법학회, pp. 159-187.
- 이민형(2015), 「예비 교사들의 훈화 내용 구성 양상: 가치 연설의 특성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제28권, 한국화법학회, pp. 61-105.
- 이선영(2010), 「토론 교육을 위한 논제 선정에 대한 소고(小考): 국내·외 토론 대회 논제 분석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제41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 241-267.
- _____(2011), 「토론 교육 내용 체계 연구: 초·중·고 토론대회 담화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준웅(2011), 『말과 권력: 레토릭에서 의사소통 민주주의로』, 한길사.
- 추정훈(2005), 「가치화의 과정과 가치교육의 문제」, 『사회과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pp. 237-261.
- Baldwin, J. (2004). Logic in LD: Part II Casing application, <http://www.nflonline.org/Rostrum/Ld1104Baldwin>
- Berube, D. M., Snider, A. C., & Pray, K. (1994). *Non-policy debating*, Univ Pr of Amer.
- Ericson, J. M., Murphy, J. J., & Zeuschner, R. B. (2011). *The debater's guide*. SIU Press.
- Gill, A. (1989). Affirmative Case Approaches, In Wood, S. & Midgley, J. (eds.), *Prima facie: a guide to value debate*, Kendall Hunt Pub Co.
- Hill, B., & Leeman, R. W. (1996). *The art and practice of argumentation and debate*. McGraw-Hill Humanities, Social Sciences & World Languages.
- Inch, E. S., Warnick, B. & Endres, D. (2006).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the use of reason in argument*. 5th ed., Pearson Education, Inc.
- Matlon, R. J. (1978). Debating Propositions of Value, *Journal of the American Forensic Association*, 14(4), 194-204.
- Pitchford, M. (2008). *The Art of Value Debate: A Study in Understanding and Discussing Values*. Communicators Advantage Project, Inc.
- Pork, L., English, W. & Walker, E. (2000). *The Value Debate Handbook 6th ed.*, Baylor Briefs.
- Richards, J. A. (1992). *Moving from policy to value debate*. National Textbook Company.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Vol. 438), New York: Free press.
- Scott, R. J. (1989). A stock issues-based paradigm for value proposition debate (Order No. 8918954).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A&I. (303820055).

- Toulmin, S., 고헌범 · 임건태 역(2003), 논변의 사용, 고려대학교 출판부.
- Tuman, J. S. (1987). Getting to First Base: Prima Facie Arguments for Propositions of Value, *Journal of the American Forensic Association*, 24(2), 84-94.
- Warnick, B. (1981). Arguing Value Proposi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Forensic Association*, 18(2), 109-19.
- Wiese, J., & Lewis, S. (2000), *Lincoln - Douglas Debate: Values in Conflict*, Clark Pub.
- Wilbanks, C. & Church, R. T. (1991). *Values and policies in controversy: An introduction to argumentation and debate*. 2nd ed., Hunt Publishing Company.
- Williams, J. & Colomb, G. 윤영삼 역 (2008). 『논증의 탄생: 글쓰기의 새로운 전략』, 홍문관.
- Ziegelmüller, G. W., Kay, J. (1997). *Argumentation: Inquiry and advocacy*. 3rd ed, Allyn and Bacon.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형식 유형 연구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이민형

본고에서는 가치 논제 토론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한 가치 논제 토론의 입론 형식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학생들이 입론의 거시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가치 논제 토론이 가진 필수 쟁점의 구조를 활용해 입론의 논리 구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입론 형식을 이유의 산발적 제시형, 필수 쟁점 반영형, 판단 기준 정당화형, 가치 적용 부각형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실제 사례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필수 쟁점의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한 입론 형식이기에 때문에 가치 논제의 특성 중 ‘평가 용어의 구체화 정도’를 가장 중요한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핵심어 국어교육, 가치 논제, 가치 논제 토론, 화법교육, 토론, 필수쟁점, 입론 형식

ABSTRACT

A Study on the Type of Constructive Speech Formats in Value Debate

—Focusing the Logic Structure of Stock Issues

Lee Minhyoung

In the current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create constructive speech formats of the proposition of value debate as a starting point for research on the proposition of value debate. An appropriate constructive speech format was proposed by analyzing the logical structure of stock issues. The current study classified constructive speech format into the following types: sporadic presentation of reasons, stock issue reflection, criteria justification, value application suggestion.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value debate, value proposition, debate, stock issues, constructive speech format,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